

남미 3개국(페루, 칠레, 아르헨)의 하반기 경제동향 및 전망

1. 2007년 하반기 경제동향

(1) 페루 : 양호한 경제지표 유지

- 페루국가통계정보원(INEI)은 지난 11월 28일(수), 지난 8월의 지진피해에도 불구하고, '07년 3/4분기 중 국내수요 증가, 설비투자증가, 수출호조 등으로 페루 경제가 전년 동기대비 8.4% 성장, 25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07년 3/4분기 중 국내수요는 민간소비와 공공부문 투자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1.5%나 증가하여 '07년 들어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중이며, 3/4분기 수출증가율도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과 생산호조 등으로 '07년 2/4분기 중 4.0%에 비해 호전된 6.5%를 기록하였음.

<표 1> 부문별 전년동기대비 수요공급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총수요(1+2)	9.2	6.0	8.3	9.8	9.4	9.4	11.5
1. 국내수요	11.1	7.1	10.3	12.0	10.6	10.4	11.5
(민간소비)	(5.1)	(6.4)	(6.2)	(7.3)	(7.7)	(7.5)	(7.4)
(공공소비)	(8.6)	(9.2)	(8.8)	(8.4)	(2.8)	(4.2)	(2.5)
(민간투자)	(24.2)	(17.6)	(16.7)	(21.9)	(19.5)	(24.3)	(29.6)
(공공투자)	(8.4)	(13.2)	(16.7)	(11.9)	(△2.8)	(13.1)	(15.7)
2. 수출	0.6	0.6	0.1	0.7	3.5	4.0	6.5
총공급(3+4)	9.2	6.0	8.3	9.8	9.4	9.4	11.5
3. GDP	7.9	5.8	8.6	8.1	8.1	8.0	8.4
4. 수입	16.4	7.5	6.9	18.5	16.0	17.5	27.9

자료 : 페루 중앙은행 2007. 12.

□ 산업부문별 성장률

- 비전통 산업이 '07년 2/4분기 10.0%, 3/4분기 10.8%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체 경제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특히, 국내수요의 활황으로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였음.
 - 제조업은 수출 1, 2위국인 미국과 중국의 높은 대외수요에 힘입어 '07년 2/4분기 11.4%에 이어 3/4분기에도 10.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건설업은 광산 도시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07년 3/4분기 16.4% 성장하였고, 서비스업은 내수 경기 호조에 힘입어 2/4분기 6.7%에서 3/4분기 11.7%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음.
- 반면, 전통산업은 '07년 1/4분기 1.9%, 2/4분기 1.0% 성장에 이어 3/4분기에는 0.0%로 더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이는 광업 및 연료부문이 2/4분기 1.9%의 부(負)의 성장에서 3/4분기에 4.6%의 성장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목축업(△1.9%), 어업(△6.3%)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최근 주요부문별 전년동기대비 GDP성장률

(단위: %)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농목축업	4.4	5.9	11.6	8.2	5.7	1.8	△1.9
어업	29.7	△11.6	17.2	△7.3	15.0	4.9	△6.3
광업 및 연료	6.4	7.6	0.0	△6.8	△1.6	△1.9	4.6
제조업	8.0	3.7	8.8	9.1	8.8	11.4	10.1
(전통제조업)	(9.6)	(0.1)	(6.5)	(2.0)	(△2.5)	(2.8)	(△3.4)
(비전통제조업)	(7.6)	(4.8)	(9.4)	(11.2)	(11.2)	(13.6)	(12.8)
건설	16.2	13.0	16.1	13.7	9.0	20.1	16.4
상업	11.1	8.4	13.1	12.5	12.1	6.7	11.7
전통산업	6.6	4.7	6.4	0.6	1.9	1.0	0.0
비전통산업	8.3	6.4	9.4	10.0	9.9	10.0	10.8

자료 : 페루 중앙은행 2007. 12.

□ 최근 대외경제 동향

- 경상수지 : '07년 1~9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해전년 동기(U\$1,480백만) 대비 26.1% 감소한 U\$1,093백만을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 '07년 1~9월 중 흑자는 U\$5,997백만으로서 전년 동기(U\$6,332백만) 대비 5.3% 감소하였음. 이는 동 기간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30.9%나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한데 기인함.

<표 3> 최근 경상 및 상품수지

(단위: U\$백만)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경상수지	△219	426	1,273	1,110	45	478	570
상품수지	1,257	2,190	2,885	2,602	1,513	2,234	2,250
수출	4,640	5,824	6,559	6,777	5,724	6,731	7,533
수입	3,383	3,635	3,673	4,175	4,210	4,498	5,284
서비스수지	△221	△228	△195	△304	△254	△285	△206
소득수지	△1,726	△2,070	△1,978	△1,807	△1,772	△2,069	△2,107
이전수지	472	534	560	619	557	598	634

자료 : 페루 중앙은행 2007. 12.

○ 수출구조

- 전통상품의 수출비중은 '07년 1~9월 중 주로 국제광물시세 호조에 힘입어 77.1% 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4> 페루의 총 수출 및 전통상품 수출 추이

(단위: U\$백만)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총 수출	4,640	5,825	6,559	6,777	5,724	6,731	7,534
전통상품	3,481	4,547	5,175	5,171	4,330	5,226	5,853
수산물	350	361	406	217	430	312	467
농산물	54	85	199	236	69	54	181
광물	2,702	3,619	4,064	4,323	3,390	4,343	4,608
원유 및 부산물	376	482	507	395	443	517	597
비전통상품	1,120	1,236	1,343	1,572	1,361	1,465	1,625

자료 : 페루 중앙은행 2007. 12.

- 광물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 금, 아연 등의 '07년 1~9월 중 수출액은 구리 및 아연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7% 및 60.7% 씩 증가한 반면, 금은 5.8% 감소하였음.

<표 5> 주요 광물의 수출 추이

(단위: U\$백만)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구리	952	1,467	1,880	1,755	1,268	1,754	2,037
금	934	1,055	1,049	967	941	931	989
아연	257	464	509	761	520	837	620

자료 : 페루 상공부

□ 재정수지, 공공채무, 외환보유고

- o 재정수지 : '07년 3/4분기 중 기초재정수지와 이자비용을 포함한 종합 재정수지는 경제회복에 따른 세원확대, 외채이자부담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공공채무 :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06년초 36% 수준에서 '07년 3/4분기 31%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공공채무의 구조는 대외채무를 현지화 표시 내국채로 전환하려는 정부 노력에 따라 대외채무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내채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6> 페루의 주요 국내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GDP 성장률(%)	7.9	5.8	8.6	8.1	8.1	8.0	8.4
기초재정수지(%/GDP)	5.4	6.4	1.9	△0.6	5.0	5.0	4.0
종합재정수지(%/GDP)	3.1	5.1	△0.1	△2.1	3.0	3.6	2.2
공공채무(%/GDP)	36.1	35.0	33.2	32.7	30.9	29.8	31.0
대외채무(U\$백만)	22,096	22,039	21,723	21,972	21,571	21,277	21,619
(%/GDP)	27.1	26.0	24.5	23.6	22.3	21.3	20.9
국내채무(U\$백만)	7,387	7,573	7,656	8,518	8,282	8,551	10,483
(%/GDP)	9.1	8.9	8.6	9.1	8.6	8.5	10.1
외환보유고(U\$백만)	14,494	14,452	15,198	17,329	18,456	21,555	22,855

자료 : 페루 중앙은행 2007. 12.

- 외환보유고 :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증가 등으로 2007년 9월말 현재 U\$22,855백만으로 총 대외채무규모를 상회하고 있음.

* 지난 11월 30일 현재로는 외환보유고가 U\$26,348백만에 달하여 2006년 말 대비 52.0%(US\$9,019백만)가 증가하였음.

(2) 칠레 : 경제성장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S&P 국가신용등급 1단계 상향조정

가. 2007년 3/4분기 경제현황

□ 지난 11월 23일(금) 칠레 중앙은행은 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국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성장 둔화로 인해 4.1%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였음.

○ 칠레 경제는 2006년 국제적인 고유가 및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 등으로 국내소비 및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4.0%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06년 3/4분기를 저점으로 국내수요 및 투자가 회복세를 보여, 2007년 1/4분기 5.9%, 2/4분기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표 7> 칠레의 분기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GDP성장률(%)	5.0	4.0	2.6	4.3	5.9	6.2	4.1
내수증가율(%)	7.8	6.2	3.6	6.6	6.4	7.8	7.8
총소비(%)	7.2	6.8	6.1	6.2	7.4	7.9	6.5
(민간)	(7.7)	(7.5)	(6.7)	(6.7)	(7.9)	(8.4)	(6.8)
(정부)	(3.9)	(3.5)	(3.5)	(3.4)	(4.7)	(4.9)	(5.0)
총고정자산형성(%)	9.5	2.0	1.8	3.3	9.6	14.6	9.5
(건설 및 기타)	(4.2)	(4.0)	(1.9)	(5.2)	(9.7)	(10.9)	(8.8)
(기계 및 장비)	(17.4)	(△0.4)	(1.7)	(1.0)	(9.3)	(19.6)	(10.4)
경상수지(US\$백만)	1,435	1,962	1,237	622	3,654	2,122	330
(상품수지)	(5,233)	(6,346)	(6,298)	(4,337)	(7,229)	(7,741)	(5,130)
(서비스수지)	(△148)	(△256)	(△318)	(△200)	(△264)	(△482)	(△451)
(소득수지)	(△4,066)	(△5,326)	(△5,465)	(△4,535)	(△3,786)	(△6,050)	(△5,148)
(경상이전수지)	(416)	(1,198)	(722)	(1,020)	(476)	(912)	(798)

자료: 칠레 중앙은행.

- 2007년 3/4분기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US\$333백만을 기록하였음.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칠레의 수출단가상승률, 수출물량증가율은 낮아지는데 반해, 수입단가상승률, 수입물량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8> 칠레의 최근 교역조건 변화 추이

(단위: %)

	2006. 1/4	2006. 2/4	2006. 3/4	2006. 4/4	2007. 1/4	2007. 2/4	2007. 3/4
수출액	43.9	48.8	54.1	19.2	22.1	20.4	6.0
수출단가	34.0	48.5	45.8	23.6	13.8	6.2	5.2
수출물량	7.4	0.2	5.7	△3.6	7.3	13.3	0.8
수입액	24.1	18.4	15.5	13.1	11.9	19.6	23.0
수입단가	7.6	6.8	5.6	0.6	0.8	2.0	2.5
수입물량	15.3	10.8	9.4	12.4	11.0	17.3	20.0

(주)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한편, 2007년 1~10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0% 증가한 US\$579.1억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20.0% 증가한 US\$357.0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상품수지 현황

(단위: US\$백만)

구분	'04	'05	'06	'07. 1-11
수출	32,520 (50.1%)	41,297 (27.0%)	58,116 (40.7%)	63,426 (17.9%)
수입	22,935 (27.8%)	30,492 (32.9%)	35,903 (17.7%)	39,952 (21.4%)
상품수지	9,585	10,805	22,213	23,474

()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단, '07. 1~11은 '06. 1~11 대비

-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 수출은 2007년 1~10월 중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한 US\$373.2억을 기록하여 총 수출액의 64.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구리수출은 2007년 1~10월 중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US\$327.5억으로 전체 광물 수출액의 87.8%를 차지하였음.

<표 10> 연도별 광물(구리) 수출액 추이

(단위: US\$백만)

	'04	'05	'06	'07. 1-10
전체 광물 수출	16,962	23,166	36,572	37,323
(구 리)	(14,723)	(18,873)	(32,332)	(32,757)

- 2007년 3/4분기 중 주요 업종별 성장률은 통신업이 14.6% 성장하여 지난 2/4분기의 14.5%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지난 2/4분기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통신업(14.6%), 건설업(8.1%), 운송업(5.0%) 등이 평균성장률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03년 이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업은 이동통신 단말기 수요 급증 등에 의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반면, 제조업(0.1%)은 평균성장률을 하회하였으며, 전력·가스·수도 부문은 20.2%의 부(負)의 성장을 하고, 광업 부문은 평균치와 같은 4.1% 성장하는데 그쳤음.

<표 11> 주요 업종별 성장률

(단위: %)

업종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광업	0.1	3.7	△3.4	0.0	6.0	5.4	4.1
(구리)	△0.6	4.6	△4.1	0.5	6.7	5.1	4.0
제조업	7.5	0.6	△0.7	2.9	3.6	4.8	0.1
전력·가스·수도	6.4	12.0	4.3	7.0	3.4	△9.6	△20.2
건설업	4.4	4.1	2.2	5.0	9.1	10.1	8.1
통신업	11.4	8.5	9.1	10.7	13.3	14.5	14.6
운송업	5.3	4.3	3.1	6.2	5.8	7.5	5.0

(주) 전년 동기대비

나. 국제신인도

- 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지난 12월 18일(화) 칠레의 최대수출품목인 구리시세의 호조로 인한 수출증가와 이에 따른 대외채무상환능력 개선 및 재정수지흑자 확대 등으로 칠레의 장기외화신용등급(long-term foreign currency credit rating)을 종전 'A'에서 'A+'로 1단계 상향조정하고, 신용등급전망에 대해서는 'stable'을 부여하였음.
- 또한, 장기현지화신용등급(long-term local currency credit rating)과 통화이전 및 태환접근등급(transfer & convertibility assessment on Chile)에 대해서는 기존 "AA" 등급을 재확인하였음.

<표 12> S&P의 칠레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재확인내역

구 분	등급	전망
장기외화신용등급 (long-term foreign currency credit rating)	A → A+	stable
장기현지화신용등급 (long-term local currency credit rating)	AA(재확인)	-
통화이전 및 태환접근등급 (transfer & convertibility assessment on Chile)	AA(재확인)	-

- 금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은 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와 같은 등급을 유지하게 되었음.
- 또한, S&P사는 신용등급상향조정의 주요요인으로 거시경제지표 개선, 대외부문의 취약성 개선 및 일관된 재정·통화정책의 시행¹⁾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²⁾되는 등 외국투자자들로부터 강한 신임을 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1)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서, 경기호조에 반하는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을 견실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초과 재정수입분을 대외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타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2) 칠레정부는 경기호조로 '07년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세입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 상품수지는 칠레와 같은 신용등급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었으나, 최근 칠레의 전체 광물 수출액 중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의 국제시세 호조³⁾로 '06년 및 '07년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음.
- 또한, S&P사는 칠레정부의 견실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칠레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재정수지흑자규모가 GDP대비 9.0% 이상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음.
- 동 신용평가기관은 GDP의 약 9.0% 수준의 연금채권 발행 이후에도 정부의 순 대외채무는 흑자⁵⁾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향후 2008~2010년 기간 중 매년 4.5% 이상의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표 13> 순 대외채무 현황

(단위: US\$백만)

구 분	'03	'04	'05	'06	'07. 1-11
순 대외채무(a-b)	15,229	9,730	6,950	△ 5,688	△ 12,401
부 채(a)	44,457	44,533	45,742	48,051	49,750
자 산(b)	29,228	34,803	38,792	53,739	62,151

- S&P사는 신용등급전망에 대해 'stable'을 부여하고, 칠레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i) 정부의 일관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ii)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 iii)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으로서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대외채무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3) 구리시세는 중국의 수요증가에 기인하여 지난 3년 간의 평균시세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지난 '07년 11월 중 구리수출액은 29.9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1%나 증가하였음.

4) 지난 10월 30일 Albert Arenas 예산담당부장은 '07년 칠레의 재정수지흑자규모가 GDP의 8.1%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참고로 '07년 1~9월까지 재정수지흑자규모는 6조 5,000억 페소(약 131억 달러)였음.

5) 동 신용평가기관은 칠레가 향후에도 순 대외채권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며, 은행 및 기업부문들은 대외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i) 구리 등 수출상품의 국제시세변동 등 대외환경 변화에 여전히 취약한 경제구조⁶⁾를 지니고 있으며, ii) 칠레와 같은 신용등급을 지닌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1인당 GDP 규모가 작은 점⁷⁾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향후 신용등급상향조정의 제한요소라고 언급하였음.

□ S&P사는 칠레의 추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다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사는 지난 12월 13일(목) 칠레의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조정하는 등 '08년 상반기에 S&P사에 이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Moody's사의 칠레에 대한 신용등급은 'A2'로 S&P사보다 1단계 아래임.

(3) 아르헨티나

□ 지난 12월 13일(목)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원(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은 '07년 3/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가계소비의 강한 증가세 및 건설경기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8.7%를 성장하여 19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01년 말 금융위기 이후, '03년 8.8%, '04년 9.0%, '05년 9.2%, '06년 8.5% 등 지난 4년 동안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는 '07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8.0%, 2/4분기 8.6%, 3/4분기 8.7%⁸⁾ 등 '07년 1~9월까지 연간 누적성장률은 8.4%로서 높은 성장세를

6) 최근 대외부문의 취약성이 개선되긴 하였으나, 구리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구리시세가 하락할 경우 같은 신용등급의 국가들보다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구조임.

7) 칠레의 1인당 GDP는 9,800달러로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신용등급국가의 평균인 16,00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속하고 있음.

<표 14> '06년 이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직전 분기대비 (계절적 요인 미반영)	전년 동기대비	연간누적
'06. 1/4	1.7	8.8	8.8
'06. 2/4	2.1	7.7	8.2
'06. 3/4	2.8	8.7	8.4
'06. 4/4	1.6	8.6	8.5
'07. 1/4	1.3	8.0	8.0
'07. 2/4	2.4	8.6	8.4
'07. 3/4	2.8	8.7	8.4

자료 : 아르헨티나 통계원(INDEC), 이하 같음.

- 부문별로는 아르헨티나 전체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소비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 근로자 임금인상 및 신용대출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가계소비는 '07년 1/4분기 8.9%, 2/4분기 8.7%, 3/4분기 8.9% 증가하는 등 '06년의 7.8%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총 고정자산형성증가율은 '06년 중 18.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07년 1/4분기 13.7%, 2/4분기 12.7%, 3/4분기 12.8% 증가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한편,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증가율이 '07년 1/4분기 9.0%, 2/4분기 8.7%, 3/4분기 8.6%를 기록하는 등 '06년 7.3%를 상회하였으며, 수입증가율도 '06년 15.4%에서 '07년 3/4분기에는 19.0%로 높아졌음.

8) 참고로, 블룸버그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07년 3/4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8.8%였음.

<표 15> 부문별 수요공급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가계소비	8.4	7.7	7.2	7.8	7.8	8.9	8.7	8.9
정부지출	8.3	5.8	3.1	4.5	5.2	6.4	7.0	8.4
총 고정자산형성	22.9	18.7	21.0	12.0	18.2	13.7	12.7	12.8
상품·서비스 수출	6.4	4.0	6.2	12.8	7.3	9.0	8.7	8.6
상품·서비스 수입	17.8	6.8	20.2	17.1	15.4	20.6	18.9	19.0

- 총 고정자산투자 중 건설부문은 '06년의 18.5% 증가 이후, '07년 1/4분기 8.2%, 2/4분기 7.2%, 3/4분기 6.4% 증가에 그쳐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자본재 부문은 '07년 3/4분기 중 23.0%나 크게 증가하는 등 '07년 들어 20.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06년의 17.7% 대비 크게 높아졌음.

<표 16> 총 고정자산투자 부문별 증가율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건 설	22.1	23.2	19.6	11.1	18.5	8.2	7.2	6.4
자본재	24.3	11.6	23.3	13.4	17.7	22.3	22.0	23.0
(국내)	(14.4)	(11.1)	(11.4)	(12.1)	(12.1)	(10.5)	(13.3)	(12.3)
(수입)	(32.6)	(12.0)	(32.7)	(14.7)	(22.3)	(30.9)	(28.8)	(30.1)

- o 산업별로는 1·2차 산업부문이 '07년 3/4분기 중 7.3% 성장하였으며, 그 중 건설업이 9.7% 성장하여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제조업(7.6%), 농목축업

(6.4%), 광업(0.3%) 등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음. 특히, 어업은 23.2%의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여 '06년의 63.5% 성장 대비 매우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 한편, 서비스업은 '07년 3/4분기 중 9.0% 성장하였는데, 금융(18.8%), 운송·창고·통신(13.7%), 상업(11.8%)을 제외하고, 호텔 및 음식(8.3%), 건강·의료(5.4%), 임대(5.2%), 공공서비스(4.4%) 등은 모두 평균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음.

<표 17> 산업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6	2007		
	1/4	2/4	3/4	4/4		1/4	2/4	3/4
1·2차 산업	9.4	7.8	9.7	8.3	8.8	6.0	9.3	7.3
(농목축업)	(0.3)	(△0.4)	(4.1)	(4.4)	(1.5)	(2.4)	(16.6)	(6.4)
(어업)	(52.9)	(52.0)	(178.0)	(15.4)	(63.5)	(1.3)	(11.2)	(△23.2)
(광업)	(1.6)	(2.5)	(3.5)	(4.1)	(3.0)	(△2.3)	(△2.8)	(0.3)
(제조업)	(9.5)	(8.9)	(9.2)	(8.1)	(8.9)	(6.5)	(7.0)	(7.6)
(공공유틸리티)	(3.8)	(5.1)	(4.6)	(6.4)	(5.0)	(4.7)	(6.2)	(7.0)
(건설)	(22.8)	(20.3)	(18.0)	(12.5)	(17.9)	(10.4)	(9.2)	(9.7)
서비스업	8.4	7.5	7.9	8.5	8.1	8.5	8.2	9.0
(상업)	(7.1)	(6.4)	(8.6)	(9.9)	(8.0)	(11.0)	(10.2)	(11.8)
(호텔 및 음식)	(6.9)	(6.6)	(7.5)	(8.1)	(7.3)	(7.1)	(7.6)	(8.3)
(운송·창고·통신)	(13.1)	(11.8)	(14.5)	(14.3)	(13.5)	(13.5)	(13.3)	(13.7)
(금융)	(24.8)	(20.2)	(20.5)	(23.2)	(22.1)	(18.0)	(19.0)	(18.8)
(임대)	(4.5)	(4.2)	(3.8)	(4.3)	(4.2)	(4.4)	(3.9)	(5.2)
(공공서비스)	(5.8)	(5.0)	(4.4)	(2.7)	(4.5)	(2.9)	(3.1)	(4.4)
(건강·의료)	(5.2)	(4.7)	(3.5)	(4.1)	(4.3)	(5.4)	(4.3)	(5.4)
(기타서비스)	(8.8)	(8.2)	(6.9)	(7.1)	(7.7)	(6.5)	(6.6)	(5.8)

2. 향후 전망

(1) 페루

- 페루 정부는 국제광물시세의 호조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와 국내수요의 활황 등으로 제조부문, 건설부문 및 상업부문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07년 중 8.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08년에도 미국과 FTA, 광물시세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부문 호조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입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총투자율 소폭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7%의 고성장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칠레

- 칠레 정부는 '07년 말 기준금리는 5.75%, '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상한선인 4%를 초과한 6.50%, 경제성장률은 5.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일부 음식료 품목에서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11월 13일(화)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하였으며, 12월 개최예정인 통화정책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Vittorio Corbo 중앙은행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에너지 부족사태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높아졌으나, 중장기적으로는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중앙은행의 목표치 이내인 3.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07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3/4분기의 다소 둔화된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종전 5.50%에서 5.30%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08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07년과 비슷한 수준인 5.20~5.30%를 보일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3) 아르헨티나

□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07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7.9~8.2%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 및 주요 경제기관들은 '08년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 수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의 여파, 에너지 부족사태 발생,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성장률 저조 등으로 6.5%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2월 10일 출범한 Cristina 신임정부는 정부 관료를 대부분 유임시키는 등 남편인 Kirchner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 정부의 경제정책인 달러대비 페소화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페소화 저평가 정책 지속으로 수출증대, 수입억제, 외환보유고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세 부과 및 고관세 정책 등을 유지하여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수지흑자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임대통령은 에너지 부족사태 및 인위적인 물가억제⁹⁾정책을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어, 에너지와 물가와 관련된 강력한 개혁정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만성적인 전력공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공급증대를 위한 정부 측의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물가상승 억제

9) 아르헨티나 정부의 '07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는 1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종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실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지난 12월 12일 '긴급법안'(Emergency Law)¹⁰⁾을 찬성 47표, 반대 19표로 '08년까지 연장하도록 승인¹¹⁾한 바 있음.

<상파울루 사무소 제공>

책임연구원 : 최성규(3779-6662)
ppio93@koreaexim.go.kr

10) 아르헨티나 정부가 '01년 말 외환위기 당시 물가안정을 위해 '02년 1월 도입한 법안으로 정부가 전력, 전화, 수도 등의 관련기업들과 공공요금과 관련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11) Cristina 신임 정부가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